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전북도, 조직 개편으로 주거복지 사업 일원화·전담 인력 확보... 청년·취약계층 등 위한 사업 추진

전북도가 주거복지 전담 인력을 확보·배치하며,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는 그간 주거복지 정책은 팀별로 분산 추진했으나, 지난 7월 1일 주거복지팀으로 조직을 개편, 주거복지 사업을 일원화했다.

또, 사회복지직을 주거복지 전담 인력으로 확보해 관련 부서 및 시·군과 유기적 업무 소통으로 질 좋은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도는 앞으로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 및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 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미혼 청년이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부

모와 별도 거주 시 부모와 분리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40%), 분리자립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기준임대료 현실화(최대 32만7천 원)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6개 단지 2,511호를 공급 완료했으며, 18개 단지 2,738호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청년 창업인,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전략을 담은 '전북형 주거복지 종합 정책'을 수립, 맞춤형 특화주택을 발굴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도 펼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5만1천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계층이 안심하고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33억 원을 투입해 3,609가구를 지원했다.

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동이나 생활상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31억 원을 투입해 856가구를 지원했다.

주거 취약계층의 따뜻한 보금자리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희망의집'과 '처주기 사업'은 현재까지 400억 원을 투자해 1만2,133가구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사업 모델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시·군 수요에 따라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에는 전주시 평화동에 고흥자 복지주택이 선정돼 국비 47억 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위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변 지역 정비 계획 수립을 연계해 시행하는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4개소를 발굴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에 대한 주거 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군 및 LH 등 공공기관 등과 손을 맞잡고, 협업체계를 구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도 주거할 수 있는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지역업체의 선한 영향력'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정읍에 소재한 PSB 바이오(주)가 '코로나19 청정 전북'을 위해 손 세정제 2,000개(1,300만 원 상당)를 기증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송상재 노조 위원장, PSB 바이오(주) 남궁수중 대표가 함께 참여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손 세정제 전달식을 했다.

제11회 전국상업경진대회 개최

도교육청 주관 18~19일

전국 상업계고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상업경진대회가 오는 18~19일 이틀간 열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11회 전국 상업경진대회'가 전북을 비롯한 3개 권역 6개 경진장에서 실시된다. 전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당초 9월 말 도내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회 일정을 연기, 권역별로 분산 개최하게 됐다.

2권역인 전북에서는 전주상업정보고(전북·전남·광주)와 군산여자상업고(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대회가 진행된다. 대회에는 각 지역대회에서 금·은상을 수상한 선수들이 참가, 경진종목과 경영종목으로 나눠 실시된다. /정은성 기자

자동차산업 근로자 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전북도, 복지 포인트 지원사업 11월 17일까지 접수

전북도(전북고용안정사업단)가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 근로자 복지 포인트 지원사업' 수혜대상자를 추가모집 한다.

도는 최대한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자동차산업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확대 적용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자동차산업 근로자 복지 포인트 지급 결정에 이어, 9월 첫 지급을 시작했다.

이후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추가 모집에 대한 문의가 쇄도해 사업단과 지자체가 논의 끝에 추가모집을 결정했다.

추가모집 결정과 함께, 지난번 지원 대상자 모집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반영, 더 많은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했다.

당초 자격요건(8월)에는 자동차 관련 산업분류 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에 해당하는 기업 종사자만 해당했으나, 확대된 자격요건에는 C30, C31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상에 '업태-제조업, 종목-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로 표기된 기업의 종사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단, 직접 부품을 정기적으로 생산해 납품하는 제조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 기업규모 조건도 확대됐다.

당초 익산시와 완주군 1인~25인 이하, 김제시 50인 이하에서 익산시와 완주군 100인 이하, 김제시 제한 없으므로 확대됐다. 그 외 나머지 자격요

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지원 인원은 시·군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1인당 30만 원씩 12월부터 분기별 4회에 걸쳐 지역사랑카드도 지급한다.

다만, 유사 지원사업인 전북청년수당 지원자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인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북고용안정사업단 누리집(www.jbwork.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재직증명서, 재직기업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주민등록등본과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을 지역사랑카드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유호상 기자

지자체 인권증진협의회 개최

전북도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공동으로 2021 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자체 인권증진협의회는 광주인권사무소가 주관해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등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인권증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 2019년에 구성했다.

협의회는 각 기관 간 인권정책에 대한 공유 및 의견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특히, 인권정책의 우수사례로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의 대표 사례인 광주광역시 풍암마을 '풍두레' 박종평 대표와 실제 추진과정에서 겪은 생생한 현장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성과 및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북도내 팔복예술공장을 소개,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전북도 인권문화역사의 한 부분을 공감하고, 다양한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전북도가 동절기 철새로부터 유입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발생을 차단하고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도는 오염도가 높은 축산차량의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거점소독시설을 기존에 14개소에서 이달 말까지 20개소로 확대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18일부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철새도래지 소독 강화와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도 함께 추진한다.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금강,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방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한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위험지역에 사육중인 오리 60만 수를 선별해 동절기 사육제한도 실시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 심포지엄 개최

전북도가 지역특화 금융모델을 정립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재무관리학회'와 2021년 추계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금융과 지역 금융의 기회'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발제는 △이준엽 UNIST 교수의 '국제 금융산업 동향과 지역 금융의 역할'을 시작으로, △노상운 전북대학교 교수의 '글로벌 금융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북의 현안 과제와 중장기 로드맵 구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이현상 전

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재만 숭실대학교 교수, Kevin Kim KAIST 교수 등 재무·금융전문가 5명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로 대표되는 경제변화 속에서 금융산업이 직면한 기회를 분석하고, 전북 지역금융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해 지속성장 가능한 금융모델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지난 1983년 창립해 회원수가 820명에 이르며, 재무관리 분야의 이론과 실무, 응용 등 연구활동과 지역 금융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한국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필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